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GUIDE BOOK

FOR GENDER EQUITY

연세대학교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GUIDE BOOK

FOR GENDER EQUITY



연세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디시 >

목차

총여학생회 <다시 봄> 소개

총여학생회 <다시 봄> 정책 소개

기조 1. 반성폭력을 다시 봄

기조 2. 문화를 다시 봄

기조 3. 국제캠퍼스를 다시 봄

기조 4. 차별 없는 캠퍼스를 다시 봄

관련 학내 기관 소개 / 여학생 휴게실 안내

성폭력 관련 지식

성폭력 바로 알기

데이트 성폭력

만약 성폭력을 겪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및 성평등 자치규약 안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2006 개정판

성에 관한 토막 상식

성 바로 알기

피임 방법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월경 이야기

성소수자 용어사전

학내 관련 단체 소개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연세대학교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구입니다. 이후 반(反)성폭력, 대학 주류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 차별 없는 캠퍼스 등을 기조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적 양상과 다양한 '차별'에 대응/성찰하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반성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남학생 휴게권', '성소수자 학생 교육권', '장애 학생 교육권', '남학생 성폭력 피해 가시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 및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여실 문을 두드리주세요

자신 혹은 주변인 중 누군가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자신 혹은 주변인이 겪은 경험이 성폭력인지 잘 모르겠을 때
활동 중인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공식적이고 원활한 대응이 필요할 때
성폭력,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장애 인권, 노동, 생태,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적 작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싶을 때
총여학생회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주제로 활동, 학회 구성, 독립 출판물 발간을 희망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지원받고 싶을 때
총여학생회에서, 혹은 총여학생회와 함께 일하고 싶을 때

총여실 위치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3층 324호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1층 B311호
재설 & SNS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6시 (변동 가능)
전화번호	(02) 2123-3645
공식 핸드폰 번호	010-5059-0324
이메일	dasibom2015@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sibom2015
트위터	@dasibom2015

기조 하나. 반성폭력을 다시 봄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새내기과 재학생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이 궁금한 학우들을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을 분실하거나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가이드북을 항상 총여학생회실에 비치하겠습니다.

학내 성폭력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성폭력 신고뿐 아니라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도 빠르게, 친절히 응답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전용 메일, 핸드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장 편한 방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피해 당사자가 상담치유·사건 해결 등을 원하는 경우 학내 성평등 센터와 외부 전문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내 성폭력 전문 상담원의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약 2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세의 학생 중 누군가가 성차별적, 성폭력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한 명마저 비정규직입니다. 전문 상담원의 고용이 안정되고 인력이 확충된다면 캠퍼스 내 성폭력 사건이 더 신속히 처리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 또한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남학생 성폭력 피해, 동성 간 성폭력 피해, 성소수자 혐오성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성폭력 문제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학내 성폭력 전문 상담원의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필두로 몇몇 여성단체에서 시작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대안적인 호신술 워크숍입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신체를 방어하는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몸에 내재하여있는 폭력에 대한 공포, 위축, 불안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과 피해를 상상해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학내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학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신입생 입학 시기와 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기에 맞추어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며 중앙운영위원회 LT나 확대간부수련회 등에서는 학생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피해자와 (남성)가해자의 구도만으로 성폭력 달론을 한정지어

논의를 이끄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대표자 대상 성인지 교육의 경우, 대표자가 성폭력 문제 해결의 주체로 충분한 역할을 갖추기에는 강의 시간과 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흘려듣지 않고,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학내 성인지교육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봄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여러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함께 학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의 예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015년 신입생 대상 성인지 교육에서 남학생 성폭력 피해가 반영되도록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의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모두가 점점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학생 성폭력 피해를 이슈화하겠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중 남성의 비율은, 가해자의 성별에 관계 없이 3~10%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성폭력 피해의 빈도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점차 '사회악'으로 인지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피해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여러 통념으로 인해 남성 성폭력 피해는 적극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내에도 종종 남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남자가 쪼잔하게 될 거라나.", "너도 즐기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성폭력이나", "그 OO(가해자) 예쁘지 않냐.", "정말 성폭력이었으면 남자가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했을 것이다."라는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념들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남자라면 그 정도 기분 나쁨은 대범하게 넘겨야 한다는 통념,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남성일 것이라는 통념,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에는 너무 '악한' 존재라는 통념, 더 나아가 남성은 자신의 힘으로 성폭력 피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통념 말입니다. 이러한 통념은 남성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의 성폭력 피해를 그저 '연애사'로 치부하게 하는 왜곡된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남학생 성폭력 피해를 끊임없이 이슈화**시키겠습니다. 이론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학생 당사자가 사건해결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조 둘. 문화를 다시 봄

연세인의 대안적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연세의 구성원이 **블록버스터나 주류적 대중문화**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등 대안적 영화제**를 발굴하고 **학우들의 관람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전시나 공연 등도 부지런히 발굴하여, 학우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학생 휴게실 재정비

여휴에서 잠 좀 자고 싶은데 너무 환해서 잠이 안 오신다고요? 불 켜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민망하시다고요? 시험 기간이라 휴게실이 딱 차서 불편하시다고요?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여학생 휴게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독서등과 스탠드**를 갖추겠습니다. **조명을 이원화**시켜 여학생들의 취침, 휴식, 공부, 기타 활동을 더욱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여학생 휴게실에는 **2층 침대를 설치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잡지, 매체 등을 구비**해 여학생 휴게실이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와, 문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성별 규범, 성폭력, 성평등, 연애, 장애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와 강연, 문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8 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 퀴어문화축제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제**와도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조 셋. 국제캠퍼스를 다시 봄

국제 캠퍼스에 성평등 센터 설치와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촌 캠퍼스와는 달리, 국제 캠퍼스에는 성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성평등 센터가 없어 국제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우들이 신촌과 국제캠퍼스를 오가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거나,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이미 **확대간부수련회에서 학교 본부와 대화** 시간에 **국제 캠퍼스에 성평등 센터 설치와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를 요구했으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입생들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입생과 RA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국제 캠퍼스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세미나를 실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요리를 통한 자립 프로그램, 소통하는 대자보** 등 국제 캠퍼스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 인권·성소수자 인권·장애 인권·노동·생태** 등을 주제로 하는 문화 행사와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조 넷. 차별 없는 캠퍼스를 다시 봄

장애학우를 위해 저상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장애학우의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학교에 저상버스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애학생교육권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2015년 신입생 대상 성인지 교육에서 술자리에서 종종 발생하는 장애인 배제적 언행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봄은 앞으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 장애 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문화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수업자료가 변환이 쉬운 형태로 제공되도록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학교에 신설된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문제 제기에도 긴밀히 대응하는 총여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본부에 남학생 휴게실을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곳곳의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통해 생긴 문제의식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입어 출발한 공간입니다. 즉, 과방·동아리방 등 학교 자치공간에서 남성 중심적 질서가 작동하거나 성적 대상화가 발생할 때 여학생들의 활동과 휴식이 불편해지고 성폭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휴식할 권리에 둔갑한 학교의 방침은 학교에 여휴만을 남겨두는 결과를 낳았고, 여휴는 이른바 '역차별'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 휴게 공간에 대한 이슈는 여자휴게실 자체와 그것을 요구한 선배들의 교육권 투쟁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를테면 여학생이 아닌 학생, 장애학생 등-이 쓸 수 있는 다양한 휴식 공간을 학교에 직접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휴가 생긴 맥락과는 별개로, 다들 힘들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학생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학교 본부에 남학생 휴게실을 요구하겠습니다. 남학생 휴게실과 여학생 휴게실을 넘어서,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항상 이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학교,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 혐오를 성찰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차별이고 혐오는 아닙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다시 봄은 성소수자를 회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수업 내용·술자리 놀이 등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세의 명백한 구성원인 성소수자 학우의 교육권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전문 단체들과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학내 기관 소개

성평등센터 (Gender Equity Center)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커리어 지도 및 생활상담 / 젠더관련 교양과목 운영 / 성평등상담실 운영

성평등상담실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 성폭력 가해자 교육 / 교내 성폭력 관련 조사와 연구 / 성폭력대책위 보고

위치

신촌캠퍼스 논지당

상담가능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5시

전화번호

(02) 2123-2118

이메일

helper@yonsei.ac.kr

여학생 휴게실이란?

학교 곳곳의 여학생 휴게실은 과거 학교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문제의식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입어 출발한 공간입니다. 즉, 과방·동아리방 등 학교 자치공간에서 남성 중심적 질서가 작동하거나 성적 대상화가 발생할 때 여학생들의 활동과 휴식이 불편해지고 성폭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공간인 것입니다. 과거 많은 학생들의 교육 투쟁으로 이제 각 단과대의 주요 건물마다 여학생 휴게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휴게실에서는 냄새가 심하지 않은 음식물의 섭취, 휴식, 수면, 전자 기기 충전, 학습 등이 가능합니다.

여학생 휴게실 위치

광복관 B124 (지하1층 복사실 있는 복도를 지나 대형 강의실 옆)

외술관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구중도 6층 놀라운-여 (자판기 옆)

신중도(삼성학술정보원) 4층 놀라운-여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옆)

과학관 B133 (지하 강의실 대각선 맞은편)

제1공학관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른쪽)

제2공학관 B050 (복사실 옆)

연회관 1층

상대별관 B112

치대 건물 2층

의대 건물 지하

논지당 (본관 오른쪽, 성암관과 아펜젤러관 사이)

성폭력 바로 알기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 결정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심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표현으로 인해 성적인 불편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단순한 Yes/No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폭력이나, 교수-학생 간 성폭력 등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서는 불평등한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살필 때는 상대가 얼마나 Yes와 No의 의사를 밝혔는지보다, 그 과정에서 동의와 거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 아니에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강간이든 화롱이든,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점에서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개념 안에는 쉽게 떠올리게 되는 강간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농담, 성기 노출, 음란 전화, 데이트 성폭력,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추근거림’ 등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을 주는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건의 경중과 심각성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이나 공포의 무게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양상은 크게 다를지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사한 사건이라도 피해 당사자가 얻은 피해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해자가 지니게 된 불편감과 상처를 강간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로 차등화하거나 비교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배움의 장,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이라고 해서 성폭력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성폭력은 명백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공동체 행사의 뒤를 이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문화에서는 술에 너무 취했다거나,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행이, 욕설 등이 용인됩니다. 왕게임, 산 넘어 산, 러브샷 1~3단계 등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는 술게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의 표시였을지라도, 또는 공동체에서 오래된 놀이문화의 일부였을지라도, 누군가가 분명 어떤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성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학생들, 심지어 수업에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권리와 성적으로 불쾌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라는 권위 뒤에서, 혹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서라는 변명 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 발언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강의실 내 성폭력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성폭력적 언행을 마주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위로라도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 학내의 분위기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학내에서 마주한 성폭력 사건이나 강의실에서 마주한 성폭력적 발언에 문제 제기를 원하는 경우 성폭력 상담실을 방문하시거나, 총여학생회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남성도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중 남성의 비율은, 가해자의 성별에 관계 없이 3~10%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성폭력 피해의 빈도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사회악’으로 인지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피해와는 달리, 남성 성폭력 피해는 한국 사회의 여러 통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내에서도 종종 남학생 성폭력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자 선배나 동기가 성적 수치심이 드는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남자가 쪼잔하게 뭘 그러냐”, “너도 즐기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성폭력이나”, “그 OO(가해자) 예쁘지 않았냐”, “웃자고 한 소리다”, “정말 성폭력이었으면 남자가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했을 것이다”라는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념들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남자라면 그 정도 기분 나쁜은 대범하게 넘겨야 한다는 통념,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남성

일 것이라는 통념,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에는 너무 '악한' 존재라는 통념, 더 나아가 남성은 자신의 힘으로 성폭력 피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통념 말입니다. 이러한 통념은 남성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의 성폭력 피해를 그저 '연애사'로 치부하게 하는 왜곡된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제가 싫다는데도, 막 한사코 억지로....."

"갑자기 그녀가 키스를 하더라고요. 물론 '뽕'타는 사이가 맞긴 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자꾸 같이 자자고 스킨십 하는 남친. 준비가 안됐다고 겨우겨우 거절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고 자꾸 캐묻는데 너무 힘들어요ㅠㅠ"

"처음이 아니라고 하니깐 갑자기 저한테 창녀라고, 걸레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트와 성폭력. 도무지 조합이 안 되는 두 단어처럼 보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 중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 모두를 뜻합니다. 서로 좋아서 데이트하는데 어떻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이성 연애의 장면을 상상해보아요. 이성 연애에서는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 연애하는 것이 로맨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요. 적극적으로 리드하면서 때로는 '거칠고 공격적인' 스킨십을 하는 남성이 '멋있다'는 인식은 유행하는 드라마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새는 거침없이 남성을 '유혹'하고 공격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여성이 '섹시'하고 '술직'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념 속에서 한 남성 또는 여성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일방적인 행동이 데이트 성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충분한 합의와 소통이 없다면, 데이트 성폭력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성연애에서도 데이트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니까요.

데이트 성폭력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 특히 매우 친밀하다고 여겨지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한다면 더욱 힘들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냥 혼자서 참고 넘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의 당사자 역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선 안 되겠지요.

만약 성폭력을 겪었다면

나는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성적 주체다.

성폭력의 경험은 너무나 힘들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한 심적 고통 속에서는 내 몸과 마음에 각인된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인 동시에 사건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적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문화가 아직도 통념과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나, 여타의 성적 경험을 말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성폭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터 혹은 과, 반, 동아리 등 대학 생활에서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그런 분위기에서, 굳이 자신의 속을 썩여가며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요. 내가 분명히 어떤 불편감이나 불편함을 느꼈으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겐 나쁜 기억을 오래오래 남기지 않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은 공동체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몹시 힘들고 지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삭이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가까운 선배, 친구들과 상의해 보세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누군가와 함께 감정의 용어리를 풀어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하소연에 '격하게 공감'하며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인에게 고민을 드러내기 꺼려질 때, **총여학생회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dasiborn2015@gmail.com로 메일을 보내거나 총여학생회 업무 핸드폰 (010-5059-0324)으로 전화를 주세요. 페이스북 메시지도 트위터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학내의 성평등 센터에서 '사건'에 준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제법 지났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사안의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2차 가해의 심각성

'사람들 많으니까 네가 참아.',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 너만 손해야.', '있잖아, OO랑 OO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는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차 가해는 가해자의 주변인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 부정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그 주변인이 정신적 또는 물리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내 공동체에서는 성폭력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통념을 아무 생각 없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상 게시판 사용이나 채팅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인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쓰는 행위, 누군가를 특정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발미로 하여 사이버 성폭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겪었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으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캡처 화면이나 갈무리한 대화 내용 등을 신고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불쾌함에 사위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의 여러 통념으로 인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를 보존합니다.

사건 후에 씻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곧바로 산부인과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사용했던 흥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지

문이 묻을 수 있으니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2. 산부인과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여부 및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끌어두세요.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세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참조)

4.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자 경찰관이 불편하다면 여자 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사건 처리절차 안내

1. 성폭력 피해상담: 상담실 또는 학과 교수
2. 신고 접수: 상담실 신고 (방문/전화/이메일), 서면접수
3. 사건조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성평등 상담실에서 당사자간 합의 중재처리
4. 심의 및 의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성폭력여부 판단 및 사건조정→ 해당 징계권자, 징계발의 요청
5. 사건처리: 성폭력 대책위원회 및 해당 징계권자 조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평등상담실

02-2123-2118
helper@yonsei.ac.kr
equityyonsei.ac.kr/helper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논지당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counsel@hotline.or.kr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8-4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www.sisters.or.kr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eq5050@womenlink.or.kr
counsel.womenlink.or.kr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성폭력 신고가 필요할 때

1.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서의 긴급 구조, 보호 또는 상담 지원

2. 원스톱지원센터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 서울해바라기센터(19세 미만)

(02) 3400-1698
(02) 870-1700
(02) 3672-0365
(02) 3274-1375
(연세의료원)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고민이 있나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718-3542
www.lsangdam.org

별의별상담연구소

878878.net/xe/146

동성애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

연세대학교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대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빈번히 일어나는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여 더 좋은 학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 미숙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 다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14년 9월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관한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이하 **자치규약**)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성폭력과 성폭력적 언행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9월 3차 개정되었습니다. 자치규약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만 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생활 속에서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정한 '자치 규약'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규약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3.08.30

제정일: 2000.10.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센터 <개정 2013.08.30>

제6조 (설치)

학생복지처 내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30, 2010.06.07, 2007.12.21>

제7조 (구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3.08.30>

②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8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8.30>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08.30>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3.08.30>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개정 2013.08.30>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8.30>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성평등센터소장, 대학원부원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4인(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30, 2010.12.1, 2010. 6. 7, 2007. 12. 21>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 수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개정 2013.08.30>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신설 2013.08.30>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8.30>
- ② 성폭력 사건 처리 회의(이하 "사건처리")는 해당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 및 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사건처리에 참석이 불가능한 해당위원의 사전서면결의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08.30, 2007. 12. 21.>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센터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3.08.30>
- ③ <삭제>
- ④ 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5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 ③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7조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삭제 2007. 12. 21.>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적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섹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 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
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 예) 여성의 옷차림이나 낮은 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예)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 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예)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예)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예) FM 및 각종 게임의 에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

동안 당연히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적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플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섀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회화화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섀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섀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2.9

1차 개정 : 2003.1.28

2차 개정 : 2006.1.21

3차 개정 : 2006.9.12

올바른 성지식

여성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불쾌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성으로서 몸과 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자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몸과 마음을 보다 건강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몸과 욕망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며, 그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당당히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나의 성적 욕망이나 공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보아요. 자신의 몸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알아보려 할 때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자위행위

남성의 약 95%, 여성의 약 80% 가량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낱선가요?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오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위행위에 죄책감을 가지는 여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위 행위를 통해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충족하는 성적인 욕망을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성적욕구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다르다고요?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식욕과 같다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이 없다고요? 그러나 현대의 다양한 이론체계들이 '욕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사회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성적 욕구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남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용인받는데 비해,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탓이 크다고 합니다. 여성이 성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의 경우, 여성이 몸과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통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치녀막? 질주름!

치녀막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치녀막'이란 그 표현과는 다르게 '막'이 아니에요. 그저 몸속으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 입구를 보호해주는 근육조직이며, 신축성이 있는 주름 형태로 되어있어 '질주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치녀막은 오히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단어이며, 첫 삽입 성교 시 치녀막이 파열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입니다. 성교로 인해 질주름이 파열될 때,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질주름은 심한 운동이나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도 파열되기도 합니다.

피임 방법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라면, 성관계 후 여성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와, 성적 욕망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성관계 과정에 대한 합의, 그리고 피임은 성관계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입니다.

콘돔

남성의 성기에 고무막을 씌워서 정액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고, 다양한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통념과는 달리,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페미돔

여성들이 질 속에 넣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액이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콘돔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지만 넣는 것이 무척 어렵고 하나에 2000원 정도로 콘돔에 비해 비쌉니다.

자궁 내 장치

전문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출산 경험 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피임약

경구 피임약: 여성호르몬으로 만든 약으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거나 자궁 경역을 흔탁하게 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임신을 막는 약입니다. 호르몬성 여드름을 줄이는 목적이나 생리불순과 생리통에 대한 처방법으로서 처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매일 주기적인 시간에 먹어야 하고, 사람에 따라 두통, 구토감,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약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방법은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생리 첫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21일을 먹고 7일을 쉬어요. 경구 피임약은 복용을 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요새는 연인이 함께 매일매일 피임약 복용을 챙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둘이서 기억하면 훨씬 덜 잊어버리겠죠?

붙이는 피임약: 몸에 붙이는 호르몬 복합제로, 1주일에 한 장씩 3주 동안 붙인 뒤 1주를 쉽니다. 먹는 피임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적지만 한 달분이 3~4만원 이상으로, 매우 비쌉니다. 2004년 말부터 국내에 시판되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 가능합니다.

사후피임약: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100% 보장되지는 않을 뿐더러, 경구 피임약을 한 번에 몇 십알씩 먹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합니다.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성관계를 맺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복용하지 않

으면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피임 효과도 낮고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질 살정제: 성관계 전 질 속에 집어넣어서 질 속에 들어온 정자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값싸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실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10~15분 전 질 속에 넣은 뒤 흘러내리지 않도록 누워서 성관계를 해야하며, 사정 후 6시간 동안은 질 내부를 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피임 방법

한 가지 피임법만으로는 100% 임신 예방을 할 수 없어요. 어떤 피임법도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배란일을 정확히 알고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주기나 배란일이 불규칙한 경우, 피임률은 더욱 낮아지므로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해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배란일을 계산하면 피임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아요. (사실, 일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임법들이긴 합니다만.....)

월경 주기법: 배란일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나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도 있고, 평소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던 여성도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 피임을 하면 그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 피임법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기초 체온법: 배란일의 체온이 좀 더 높은 것을 이용한 피임법.

점액 관찰법: 배란일에 나오는 점액으로 배란일을 아는 방법.

피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임은 서로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관계는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임도 함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콘돔을 사는 것이 부끄럽다거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다거나, '느낌'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몰이해와 성관계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관계의 결과물은 여성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경 기간 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될 수 있어요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주기는 짧거나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생리 중에 배란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 출혈을 생리라고 오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는 몸 속에서 5일 정도를 살 수 있기에 생리 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리 중 성관계는 세균 감염

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성관계를 한 날이 배란일이거나 배란일까지 정자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임신이 되겠지요.

질외사정은 절대 피임법이 아니에요

정자는 사정할 때 뿐 아니라 성관계 중 남성의 성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분비물인 쿠퍼씨액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외사정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또한 질외사정은 남성들의 조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위해서도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느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돔 사용을 거부하거나, 질외사정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성관계이지 않을까요.

성관계 후 곧바로 씻는다고 해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씻어도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는 빠를 수 없으니까요. 질 속 깊이 씻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요?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복용 중단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해요

피임약 복용을 중단한 직후라면, 더욱 신중히 피임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불임이 되거나 기형아를 낳지 않을까요? NO!

경구 피임약은 여성의 가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임약 복용 중단 후 2년 이내에 임신에 성공한 확률은 88.3%로 이러한 확률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의 2년간 임신 성공률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피임약 장기 복용이 여성의 가임 능력에 어떠한 중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여성들은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돌아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복용 중단 후 2~3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주기가 돌아오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복용하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정상적인 생리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는 데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피임약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 없음!

현재까지 먹는 피임약과 유방암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임약을 5개월 이상 복용시 40%의 난소암 예방 효과와 50%의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쪼는다고 정말인가요? NO!

피임약 복용 초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증가시키므로 몸속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면서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잘 붓거나 피부부러붙이 쉽게 발생하는 여성이라면 산부인과에서 상담 후 처방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없애는 피임약을 단순히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먹어도 되나요?

피임약은 피지 분비를 촉진하여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하는 피임&생리 이야기

월경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그것' - 놀랍고, 당혹스러웠던 기억, 교복에 피가 묻어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빨고는 체육복 바지로 갈아입은 기억.

배가 너무 아프지만, 이유는 대충 얼버무려 말하고 아자를 빠진 기억.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찾아오는 월경.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편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월경 중에는 혹시나 피가 샌 게 아닐까, 묻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늘 신경이 쓰이고, 월경통이 있어도 이유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참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리대를 사러 갔는데 가게 점원이 남자면 웬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떤 정원은 검은 비닐봉지에 생리대를 꼭꼭 숨겨 포장해주는 엄청난 '배려'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경이 이렇게 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고, 사실 부끄러운 일도 전혀 아닐 텐데요, 월경에 대해서 총여학생회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대안생리대

생리대 광고들을 함께 돌려켜 보아요. 청순한 이미지에, 피부가 뽀얀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깨끗한' 또는 '새하얀' 등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 생리대는 새하얗게 보이기 위해 많은 양의 화학물질들을 사용해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 중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월경통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화학물질과 생리혈이 만나서 냄새가 오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생리대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면 생리대

말 그대로 면으로 만든 생리대입니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 화학약품 때문에 생기는 냄새도 줄어지고, 감촉도 더 뽀송뽀송합니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월경통이 줄거나 없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흡수력이 좋아 시중에서 파는 생리대보다 더 생리혈이 새 걱정이 없습니다. 양이 많은 날에는 안감이 두툼한 생리대를 쓰거나, 디자인에 따라 생리대 내부에 안감을 더 집어넣으면 생리혈을 더욱 잘 잡아 줍니다.

물론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 직접 빨아야 해서 귀찮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빨 수도 없으니, 한동안은 가방이나 파우치에 보관해야 하고요. 하지만 월경통이 심하거나, 생리대로 인한 피부트러블이 심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까요? 면 생리대를 만들고 싶거나 면 생리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피자매 연대 사이트**(<http://www.bloodsisters.or.kr>)를 참고하세요. 요즘은 면 생리대 완성품을 파는 쇼핑몰들도 많이 늘어났답니다.

키퍼(Keeper)

키퍼는 보들보들한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작은 깔대기입니다. 깔 접은 뒤 질에 삽입하면 키퍼가 월경혈을 받아냅니다. 약 12시간 정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월경혈이 키퍼에 가득 차면 그냥 따라버리고 나서, 물로 헹군 다음 다시 착용하면 됩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은 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월경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키퍼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면(Sea Sponges)

해면은 탭폰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면에 치실을 붙여서 쓰는데, 탭폰에 달린 실처럼 질에서 쉽게 해면을 꺼내기 위한 것입니다. 해면을 물에 넣고 흠뻑 적신 다음 물기를 짜내고 질 내부에 삽입하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해면을 꺼내 물로 씻으세요. 아쉽게도 시중 생리대보다는 생리혈이 잘 새는 편이라고 합니다.

생리결석제

적어도 수업에 관해서라면, 월경통을 공공 숨기지 마세요! 너무 아파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도 손해인데, 결석의 이유까지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18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는 여학생 교육권의 일환으로 생리결석제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연세대학교에서는 2007년 2학기부터 생리결석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연세포탈 → 학사관리 → 교과/수강 → 생리결석제로 가시면 생리결석제 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시작일자 밑의 파란 네모를 클릭하여 결석했던 날을 선택하면 신청내역이 뜹니다. 이제 프린트해서 교수님께 제출하면 돼요. 한 학기에 최대 5일, 1회 2일까지 사용가능하고 그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생리공결제는 여성의 월경 경험이 부끄러운 것도, 감춰야 할 것도 아님을 꾸준히 이야기해온 여성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생리결석제는 월경을 경험하는 여학생으로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악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나이가 들어 월경이 끝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폐'는 '달하다, 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는 여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으로서 생명이 다했다는 '폐경' 대신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는 '완경'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완경은 몸이 변화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폐경'을 하면 '이제 난 여자로서 끝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을 갖고 있어야만 여자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제부터는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긴 여정을 마친 몸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가까운 누군가의 '폐경'을 '완경'이라고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월경,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적으로 배란일은 다음 예상 월경일로부터 14±2일 전입니다. 따라서 월경주기가 30일인 경우에 배란일은 월경 시작일로부터 17일째가 되겠지요. 가임기간은 이러한 배란일과 더불어 정자의 생존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장 짧은 월경주기에서 18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첫날, 가장 긴 월경주기로부터 11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월경주기가 26일이고, 가장 긴 월경주기가 32일인 여성의 경우 월경을 시작한 날로부터 8일째(26-18)-21일째(32-11)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월경주기는 개인에 따라, 또 개인이 처한 환경과 기분에 따라 차이가 크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은 정말 "평균적"일 뿐이죠!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월경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매월 언제 월경은 시작하였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8-12개월 정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소수자 용어사전

커밍아웃 (coming out)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커밍아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타인이 모르고 있던 자신의 어떤 점을 드러낸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웃팅 (outing)

아웃팅은 성소수자임을 숨겨왔던 유명인사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 또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성소수자인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일을 의미해요.

이성애(중심)주의 (heterosexism)

우리 중 대부분은 이성애주의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이성애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연애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태도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애주의 또는 이성애중심주의는 이성애만이 연애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상상하는 태도와 그 태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현상을 의미해요.

이성애중심주의라는 단어는 연애하지 않는 사람을 어딘가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조롱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쓰입니다.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성 연애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거나, 이성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을 '모술' 또는 '마법사'라고 회화화하는 문화도 꼼꼼히 따져보면 이성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동성애혐오 (homophobia)

동성애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을까 염려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동성애 혐오는 조건 없는 거부감 또는 비합리적 혐오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지닌 동성애 혐오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따돌리거나, 폭행하거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강연이나 행사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혐오 범죄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이 이틀 근육질의 강간 가해자로 묘사하고 회화화하는 '홍콩행 게이바'라는 웹툰이나, 어느 게이 포르노 출연자의 모습이 인터넷에서 '합성필수요소'로 쓰이며 회화화되는 것도 사실 동성애 혐오의 한 일면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 혐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경우보다는 그저 잘 몰라서, 낯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놀라운 것은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가 오히려 동성애를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성소수자를 싫어해 성소수자 탄압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성소수자도 있다고 하네요.

몇몇 쿼어 이론가는 '오늘날의 동성애 혐오는 보다 정교해서, 혐오의 당사자조차 그것이 혐오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농담이나 언행이 혹시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술자리에서는 남학생끼리, 또는 여학생끼리 러브샷을 시키며 '게이샷' 또는 '레즈샷'이라고 회화화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게이' 또는 '레즈'가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쓰이는 놀이문화 역시 그 이면을 따져보면 동성애 혐오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은 타인에게 향하는 정서적, 성적 이끌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적 지향성이라고도 해요. 세상에는 이성애·양성애·동성애·무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이 존재합니다. 종종 '성적 취향' 또는 '성적 선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선호'나 '취향'이라는 표현은 마치 담배나 커피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단지 현재 그것을 좀 더 좋아한다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동성애자를 이성연애가 가능하지만 단지 동성연애를 더 '선호'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동성애를 후천적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취향'의 문제로만 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을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젠더(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

젠더(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해요. 개인의 성별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단지 생물학적 성(sex)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강한 영향을 받는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별 정체성' 대신 '젠더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성역할 (gender role)

성역할은 우리가 흔히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고 말하는 행동, 태도, 특성 등을 의미해요. '저는 여자라서 힘쓰는 일은 못 해요' 또는 '저는 남자라서 섬세한 일은 잘 못 하겠어요'와 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몇몇 표현들은 사실 성역할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보통의' 남성보다 힘이 세거나 술을 잘 마시는 여성도 있고, '보통의' 여성보다 힘이 약하거나 섬세한 작업에 훨씬 능숙한 남성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여자라서', '남자라서'라는 수사를 쉽게 갖다 붙이는 영역 중에서는, 사실 성별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이가 유의미한 영역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가 존중해야 할 차이는 사실, 성별의 차이가 아닌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자라서', 또는 '남자라서' 무언가를 '못 하겠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런 일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성별 규범(gender norms)

성역할 구분이 뚜렷한 사회일수록, '자고로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등의 말을 찾아보기 쉽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성역할에 걸맞은 행동, 태도, 특성 등을 갖출 것을 사회적·문화적·규범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성별 규범' 또는 '젠더 규범'이라고 해요. '여자가 왜 그리 조신하지 못하니?', '남자가 이렇게 술을 못해서야 사회생활 하겠어?'처럼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몇몇 말들은 성별 규범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따위의 성역할적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고, 성별 규범을 강요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퀴어 (Queer)

퀴어는 이성애만을 유일한 연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모든 성적 소수자를 의미해요. 원래는 '이상한, 기묘한'이란 뜻으로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모욕을 줄 때 쓰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동성애자 인권 운동 진영에서 퀴어라는 단어가 당당함과 자긍심을 불어넣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래, 나 이상하다. 그래서 어쨌래?'라는 식으로 오히려 '퀴어'라는 모욕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가져와, 자신들이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19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경향은 왜 동성애자는 차별받는가, 동성애자란 누구인가 등의 의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동성애자 운동이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르지 않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성이 다를 뿐, 모두 같은 인간이다'라며 사람 사이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퀴어 운동과 이론은 오히려 '차이'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이외에도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성소수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했지요. 이제 퀴어는 단순히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범주가 되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간성, 크로스드레서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포함하게 된 거죠.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 참조하여 재구성.

ALICE IN FEMINISM

페미니즘 기획대장 앨리스는-

여성과 남성의 소거되지 않는 차이를 인식하고,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한 사회적 차이가 성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양합니다. 앨리스는 페미니스트가 싫어 IS로 떠난 김군을 이해합니다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그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외치는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여러분이라면 환영해요!

- 왜 국회의원, 교수, 학생사회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남자일까?
- 왜 할머니는 자기도 여자면서 오빠/남동생을 더 좋아할까?
- 차례, 제사는 왜 남자들만 지내는 걸까?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총여학생회는 왜 필요한 걸까? 왜 여학생 휴게실만 있는 걸까?
난 여성 가족부가 싫은데?
이 꼴페미들, 대체 무슨 소리하는지 들어나보자!

페미니즘의 =도 모르는 분도 환영해요~

COME
2GETHER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컴투게더는 연세대학교 학내 성소수자(LGBTAIQ) 중앙동아리입니다. 성소수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에이섹슈얼(무성애자), 인터섹스(간성), 퀘스처닝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컴투게더는 1995년 4월 1일에 첫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가을에 준 중앙동아리로 가동록을 거쳐, 2007년 9월 중앙동아리로 승인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 경고3회 누적으로 준동아리로 다시 강등되었으나 이후에도 변함 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꾸준히 회원 수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현재 컴투게더는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주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간 친목을 위한 모임을 비롯하여 분기별 MT, 홈커밍데이 등 과 같은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성소수자 동아리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동아리 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아리 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4년 1월 발족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Queer University, 큐브)에 가입하여 학내외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나가고 있습니다. 컴투게더는 친목만을 위한 동아리도 아니고 인권운동만을 강압하는 동아리도 아닙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심사와 의견을 가진 학내 성소수자 구성원들을 최대한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전반에 강압적인 부분은 없이 개인의 활동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투게더는 연중 상시 모집하며, 연세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한 소속/학번/성별/나이/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come_together@hanmail.net (주의! 언더바가 2개입니다) 으로 보내주시면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회장단의 인터뷰 이후에 공식 가입이 완료되어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두려운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컴투게더의 문을 두드리주세요!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연세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입니다. 저희는 'Do Not Keep Calm & Fight For Your Rights'를 기조로 삼아 장애로 인해 제한을 받아온 개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권문화제, 배리어프리 지도 제작,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우들의 제한된 문화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금은 특별한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번에 장애인권위원회 신설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어 총학생회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권문화제는 매년 5월마다 개최되며, 작년에는 국제캠퍼스에서의 시설에 대해 직접 장애학생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만한 건물의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에 대해 보다 즐겁고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퀴즈를 맞추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게르니카에서는 배리어프리 지도를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아무런 제한이나 장벽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다닐 동안 주된 활동무대가 될 신촌이나 이번에 새로 확장한 송도에는 유명한 맛집이나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가게들 또한 많습니다. 입구에 턱이 있다든지,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가게나 건물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가게들도 찾아봤더니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관심만 가진다면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접근이 가능한 가게나 건물들을 한데 모아 지도, 일명 배리어프리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저희 게르니카 회원들이 평소에 직접 탐방을 나가며 하나하나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았던 턱이 있는지 없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그 곳이 바로 배리어프리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면 그 소중한 자료는 바로 배리어프리 지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 이외에도 만약 게르니카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져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게르니카에 들어오면서 국제캠퍼스 내의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들을 물어두지 않고 직접 항의하고 부딪히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연고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시 학교 측과 제대로 된 협의가 안 되어 장애학생들이 연세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즐겨야 할,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연고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대자보 및 웹자보를 써서 게시하고 직접 항의하여 학교 측과의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렇듯 주변에는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지면 더 좋게 나아가는 것이 있고 약간의 관심조차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르니카는 그런 약간의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사회에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겪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에 공감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의 불편함이나 장애가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등등을 공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게르니카라고 생각합니다. 게르니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른 어디에서도 못해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주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만 봐도 쉬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게르니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 주제와 결합시키며 보다 더 나은 장애인권의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모든 분에게 게르니카는 항상 열려있습니다.